

세 · 번 · 상 · 식

칩 · 칩즙 · 칩 추출물



『이 호에는 식품제조용 또는 공산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높은 전분이나 이눌린을 함유하는 괴경(塊莖)과 뿌리가 분류되며 또한 사고 야자의 수(pith)가 분류된다. 때로는 괴경과 뿌리는 식용이나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되기도 한다. 이 호에는 이 호에 속하는 뿌리 또는 괴경의 조각(예 : 칩) 또는 제 1106호에 속하는 그들의 분(powder)·조분(meal)과 분말로부터 만들어진 물품을 분류한다. 이 펠리트는 압축하거나 결합재(당밀·아황산펄프의 폐액의 농축물 등)를 첨가하여 펠리트로 할 때도 있으며, 첨가한 결합재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3% 이하이다. 이 호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뿌리와 괴경에 추가해서, 이 호에는 타로감자(일명 taros)와 얀 및 통상 중국의 마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레오차리스 덤시스 또는 이레오차리스 튜베로사종의 식용 괴경을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을 그 이상으로 조제 한 것은 기타의 류에 해당된다.』

이상은 HS 0714호 『매니옥·칩뿌리·살렘·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 야자의 수』의 내용이다.

즉 0714호에는 전분이나 이눌린(화학적으로는 전분과 유사하나 옥소를 가하면 청색 대신에 밝은 황갈색을 나타낸다. 이것은 예루살렘 아티 초크(jerusalem artichokes)·다리아 근 및 치커리 근에서 추출되며, 물에 오랫동안 끓여서 분해하게 되면 과당(laevulose)이 된다.

0714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는 고구마·타피오카·얀(마 또는 산마, 산약)중국마름 등이 있으며, 한방에서는 갈근(葛根)이라고도 불리는 칩뿌리 또한 신성·냉장·냉동·건조 여부를 불문하고 제 0714호에 분류 된다.

칩 가공품으로서 압착법에 의한 칩즙은 액상이나 건조 후의 분말 상 여부를 불문하고 제 2008호(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분류될 것이며, 칩으로부터 물이나 알코올 등과 같은 용매를 이용하여 유효 성분을 추출(抽出 : extraction)한 것은 제 1302호에, 칩즙이나 칩 추출물을 희석하고 감미제 등으로 조제하여 음료수로 가공하였다면 제 2202호(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에 분류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초유(初乳:Colostrum)”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초유(初乳: Colostrum)란 갓 출산한 소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말한다. 출산직후 24~48시간 이내에 수집하는 것으로, 농도가 진하고, 누르스름한 색을 띠며 약간의 점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포유류는 출산 직후 어린 새끼에게 단시간에 많은 영양물질과 면역물질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초유는 정상유에 비하여 풍부한 영양소와 면역조절물질, 성장 및 상처 치유물질 등 다량의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일반 포유류는 갓 태어난 새끼에게 초유를 먹임으로써 성장에 필요한 면역인자를 공급하게 된다. 그래서 송아지 사육시 초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송아지가 어미 소로부터 이전받지 못하는 항체·무기질·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초유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초유를 섭취하지 못한 송아지는 제대로 성장하기 못하거나, 95%가 죽는다.

초유에는 알부민과 글로불린이 많이 들어 있어 담백하고, 유방의 상피세포(上皮細胞)와 백혈구도 지방구와 같이 흡착된 상태로 들어 있다. 면역체가 많이 들어 있어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주고, 이질작용(痢疾作用)으로 태변을 배출시켜 황달을 조기에 예방한다. 동시에 비타민 A·D와 광물질(특히 철분의 함량은 우유의 17배나 들어 있음) 등의 영양제를 공급하여 성장 발육을 촉진한다.



최근 신생아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유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어 시중에는 초유 관련 조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본품은 초유를 농축 후 분무건조한 미황색 분말이다.(지방분 전중량의 1.5% 초과)

【세번정정이유】본품은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기타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는 HSK 0404.90-9000호로 신고하였다. 초유는 갓 출산한 소에서 생산되는 우유로 일반 우유와 시기적인 차이에 의하여 분류한 것일 뿐 일반 우유와 다른 물품이 아니다. 따라서 초유 분말은 제0404호의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기타 물품”에 분류될 수 없고, 우유가 분류되는 세 번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0402.2-호에는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우유 분말(milk powder)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지분유분말(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이 특개된 HSK 0402.21-1000호로 정정 분류하게 되었다.

통 · 관 · 뉴 · 스

▶ 6월부터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출입절차 대폭 간소화

6월1일부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에 대한 법규위반 과태료 처분이 완화되고 보세운송 연장기간이 3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역외작업 반출시설제에 대한 반출이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해지고 역외작업신고시 수출실적증빙절차 간소화 등 역외작업절차의 전산신고를 확대, 포괄신고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이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운영을 계기로 동 지역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역외작업절차 간소화, 국외반출물품 보세운송 연장기간 확대, 법규위반 과태료의 처분완화 등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지역 반출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동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이외지역에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거래 은행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던 것을 세관공무원의 수출통관실적 조회로써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방식에 의해 자유무역지역외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여러 건의 역외작업에 대한 일괄신고를 허

용하고 계약서, 수탁업체 약도, 부산물 및 폐품 내용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하게 된다.

또한 국외반출신고 물품의 보세운송 및 적재 이행기간의 연장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 견품 등 일시반출입기간의 연장을 6개월 범위내로 명확하게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세운송기간을 경과해 물품을 운송한 경우와 수입물품 반출기간을 경과한 경우 각각 일률적으로 10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각각 지체 기간에 따라 10~50만원으로 완화했다.

▶ 관세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수정신고가산세 5월22일자 수정신고부터 적용

지난 3월24일 관세법 개정에 이어 5월22일자로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징수금액의 최저한도 및 가산세 등 징수제도가 변경됐다.

관세징수제도 변경 내용에 따르면 관세법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도금액이 3천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됐다. 적용시점은 시행령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관세법 42조의 가산세가 변경됐다. 수정신고 가산세의 경우 6개월이내의 경우 5% 부과, 6개월 이후 10% 부과에서 6개월 이내의 경우

5% + 6, 6개월 이후 10% + 6로 변경됐으며 변경 수정신고가산세의 경우 5월22일자 수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수정신고가산세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부과되며, 6는 당해부족세액 x 당초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 x 1일 10만분의 13의율이 적용된다.

▶ 인터넷 마약밀수단속위해 중국 관세청과 Hot line 설치키로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거래에 의한 마약밀수의 단속을 철저히 하고자, 중국 해관총서(우리나라의 관세청)와 Hot Line을 설치키로 했다.

이는 5.18일 중국 연길에서 열린 해관총서와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인터넷을 통한 마약밀수의 공급책이 모두 중국 등 외국에 있고, 다수의 국내 사용자가 소량 단위로 밀수하기 때문에,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외 공급조직을 발본색원하고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적발된 중국 및 캐나다로부터의 인터넷 마약밀수건수를 살펴보면, 5.24일 현재 20건으로 작년 1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이는 금년 전체 마약류 적발 건수(67건)의 30%에 해당한다.

또한 인터넷 거래에 의한 마약류 불법거래·투약은 지금까지의 밀수 → 도·소매 → 투약의 여러 단계와 달리 해외 공급조직과 국내 최종사용자간 중간 단계 없이 이뤄지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께 투약사범들은 학생, 회사원, 가정주부 등 전과가 없는 초범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마약류 남용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 관세청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네트워크”구축

관세청은 전국의 각 세관과 산하기관의 자매결연마을 15곳을 연계한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을 개시했다.

인트라넷(관세청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매결연마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관세청 직원이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된 이번 네트워크에서 관세청직원들은 직거래 장터를 통해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제공받고, 농촌에서는 직원들의 홍보 및 구매확산으로 매출이 증대돼 상호 Win-Win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직거래 장터에서는 강원도에서 제주도에서 이르는 15곳의 자매결연마을에서 생산된 고추, 쌀, 고구마, 벌꿀, 호박, 포도, 한라봉 등 다양한 농산물이 4,300여명의 직원에게 소개돼 공동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㉟

2006년 6월 10일